

1983. 6

農政施策浸透에 있어서 同姓部落과  
各姓部落의 呼應度差에 관한 調査

金 漢 九 (首席研究員)

閔 尚 基 (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 머 리 말

農村社會도 都市化·産業化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전례없는 機能的인 分化現象이 일어남과 더불어 농민들도 異質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農政에 대한 期待나 欲求 수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農政施策에 대한 관심도 個別農家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狀況의 變化가 오늘날 農政施策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더 해 주고 있다.

따라서 農政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해서는 農政施策이 개별 농민들의 欲求를 최대로 수렴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農民들이 農政施策에 능동적으로 호응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침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農政施策을 地域的 條件이나 特性에 맞도록 選別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本 研究은 이를 위한 基礎作業의 하나로 韓國農村社會에 있어서 同族集團이라는 주요 特性이 農政施策을 수용·집행에 있어 어떤 특징적인 作用을 함으로써 同姓部落과 各姓部落간에 差異點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특성에 맞춰 전개해야 할 農政施策의 推進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農政施策을 보다 효율적으로 농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同族集團 이외의 여러 다른 特性에 대한 檢討와 더불어 이에 따른 農政施策의 浸透方式에 대한 研究가 있어야 한다.

1983. 6.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비

면

# 目 次

1. 序 論 .....	1
2. 資料蒐集 및 方法論	
1. 資料蒐集 .....	4
2. 調查部落의 一般的 特性 .....	6
3. 分析結果	
1. 家族計劃 .....	8
2. 班常會 參席 .....	9
3. 논에 벼짚 깔기 .....	10
4. 畦畔에 콩심기 .....	11
5. 複合營農에 대한  관심 .....	12
6. 土壤改良劑 施用 .....	13
7. 규격못줄 사용 .....	15
8. 畦畔잡초 불태우기 .....	16
9. 벼種子 更新年數 .....	16
10. 深耕 및 客土事業에 대한  호응 .....	18
11. 種子 求入處 .....	21
12. 肥料의 種類와 使用量 基準 .....	23
13. 農사에 관한  문의차 .....	24
14. 冬季營農教育 參與 .....	25
15. 農政施策의 傳播經路와  농민들의 受容經路 .....	27
4. 要約 및 結論 .....	30

비

명

# Ⅱ

## 序 論

農政은 農業과 他産業과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여 農業從事者의 生活向上을 기하려는 國家政策 手段의 하나로서 農産物의 增産, 價格 및 流通構造의 改善, 農家所得 增大와 農村文化水準의 향상에 目標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農政의 目標 具現을 위하여 시행되는 구체적 方案들이 바로 農政施策이다.

따라서 農政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함에 있어서는 農政施策을 어떻게 樹立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農政施策을 여하히 農民들에게 傳播受容토록 하느냐도 중요하다. 주시하다시피 農政施策의 傳播對象者를 農村社會의 基本的 構成單位 組織인 부락(마을)을 근거지로 營農에 종사하는 農村住民들로만 국한하더라도 千餘萬名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다 이러한 農政施策의 主 對象者들은 아직도 都市人에 비하면 비교적 同質的이지만 그간의 産業化, 都市化의 과정에서 轉換期를 맞은 農村社會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分化가 일어나 점차 異質化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農村住民들의 農政施策에 대한 欲求期待의 내용이 나 수준도 개개인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國家目標 지향적인 農政施策과 個人自身の 欲求充足과의 불일치로 갈등을 빚어 내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날 農政施策을 農民들에게 傳播하여 農政當局이 원하는대로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어려운 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을 農政施策에 能動的으로 呼應토록 하려면 農政施策이 農民 개개인의 欲求充足은 물론 國家目標達成 過程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解消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施策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農政施策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들 즉 農政施策의 受容主體인 農民層의 構成이 多樣하고 또 農政을 主導하는 農政組織體의 人力不足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에 현실적인 問題點을 극복하면서 농민의 욕구에 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農政施策을 추진할 수 있는 方案에 대한 檢討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公約數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락(마을)의 特性에 맞춰 農政施策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부락(마을)은 적게는 수십 호에서 많게는 수백 호에 달하는 家口들로 구성된 農村社會의 基本的 構成 組織體로 農政을 비롯한 國家行政의 最下位 單位이기도 하다. 이러한 農村部落은 일정한 地域을 範域으로 構成員들간에 情誼의이고 面接的인 結合紐帶 속에 生産과 消費를 비롯한 거의 모든 日常生活을 互惠의이고 協同的인 相互作用을 통해 영위한다. 이러한 가운데 부락은 그 자체 명확한 獨立性和 獨自的인 慣習과 傳統을 형성하여 하나의 社會的 統一性を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農村部落은 歷史的 產物로서 비록 國家權力の 行事 形態와 社會, 經濟的 構造에 따라 그 유형은 다르지만 본래의 독특한 役割과 機能이 있기도 하다. 傳統적으로 農村部落은 生産共同體, 防衛共同體, 生産物貢納體, 祭祀共同體, 稅徵收의 單位體 등등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役割은 아직도 農村部落에 部分的으로 殘存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써 오늘날 農村部落은 生活共同體로서 또 農村住民의 基本的 生活의 場이 되고 있다.

農村部落에는 傳統과 慣習을 바탕으로 한 社會的 統一성이 유지되고 또 부락을 代辯하고 農村住民들을 이끌어가는 里長을 비롯한 各급의 지도자가 있어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욕구를 쉽게 수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락을 農政施策受容의 基礎單



位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밖의 다른 農業과 관련된 社會·經濟的 與件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農政施策을 樹立, 推進하여야 한다. 이때 부락의 특성을 類型化할 수 있는 기준에는 自然, 立地的條件, 農業經營 및 生産樣式, 耕地分布와 그 利用과 같은 營農上的 自然環境的, 經濟構造의 특성과 부락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構造的 特性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 중에서 부락의 構成員이 同質의인가 아닌가 하는 姓氏構成에 의한 人文的 特性에 따라 부락의 특성을 同姓(同族)部落과 各姓(非同族)部落으로 구분하고 그들 부락간에 農政施策의 受容에 差異點이 있나를 보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그 이유는 同姓部落에는 同族集團이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을 중심으로 住民間에 社會的, 經濟的 行爲에 있어 독특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同族集團은 같은 祖上을 중심으로 血統을 같이하는 집단으로서 이러한 집단은 祖上の 祭祀와 崇祖觀念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親睦, 繁榮, 結束을 중요한 이념으로 하면서 祖上の 社會的 地位를 내세우고 나아가 自己同族의 우월성을 과시코자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同族集團은 門中어른을 중심으로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自己同族員간에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教育的 및 祭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강한 結合意識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한 結束意識과 社會, 經濟的 行爲樣式에 있어서의 특이성이 農政施策을 理解하고 受容하여 實行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農政施策의 추진은 同姓部落과 各姓部落간에 그 차원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 2 資料蒐集 및 方法論

### 1. 資料 蒐集

本研究에서 이용된 자료는 1983.3.8 ~ 16일에 걸쳐 全北 益山郡 三箕面, 慶北 漆谷郡 石積面, 慶北 善山郡 高牙面에서 同姓部落과 各姓部落을 각각 1개씩 有意적으로 선정한 후 同姓部落에서는 全農家를 대상으로, 各姓部落에서는 一部 農家만을 有意적으로 선정한 후 經營主와의 設問紙에 의한 直接 面接方式에 의하여 蒐集된 것이다.

本研究的 調査地域인 同 部落은 當 研究院에서 農漁村의 社會·經濟的 變動에 관한 調査研究와 관련하여 이미 選定되어 조사되고 있는 지역이며, 各姓部落은 同姓部落과 인접되어 있는 부락으로서 同姓部落과의 自然的 立地條件과 營農條件의 類似性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들 調査地域과 調査農家數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이들 調査部落別 調査農家の 몇 가지 社會, 經濟的 背景 變數에 대한 特性을 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 調査地域과 調査 農家數

조 사 지 역	조 사 능 가 수			비 고
	남	여	계	
전북익산군삼기면현동	32(97.0)	1( 3.0)	33(100.0)	동족부락 (연안이씨)
"    원동	59(88.1)	8(11.9)	67(100.0)	비동족부락
경북선산군고이면파산동	28(96.6)	1( 3.4)	29(100.0)	동족부락 (김해허씨)
"    "    신촌동	64(75.0)	2( 3.0)	66(100.0)	비동족부락
경북칠곡군석적면망정 2 동	24(75.0)	8(25.0)	32(100.0)	동족부락 (순응안씨)
"    "    도계 2 동	556(80.9)	13(19.1)	68(100.0)	비동족부락
계	262(88.8)	33(11.0)	295(100.0)	동족부락 : 94 호 남자 : 84 여자 : 10 비동족부락 : 201 호 남자 : 178 여자 : 23

表 2 調査地域別 調査農家の 特性

세 부 내 용		부 락 별	동 족 부 락	비 동 족 부 락	계
연 령 별	20 - 30 세		7( 7.4)	12( 6.0)	19( 6.4)
	31 - 40 세		19( 20.2)	32( 15.9)	51( 17.3)
	41 - 50 세		17( 18.1)	59( 29.4)	76( 25.8)
	51 - 60 세		21( 22.3)	62( 30.8)	83( 28.1)
	61 세 이 상		30( 31.9)	36( 17.9)	66( 22.4)
	계		94(100.0)	201(100.0)	295(100.0)
교 육 수 준 별	무 학		18( 19.1)	23( 11.4)	41( 13.9)
	국 · 한문해독		21( 22.3)	40( 19.9)	61( 20.7)
	국 중 (퇴) 출		33( 35.1)	86( 42.8)	119( 40.3)
	고 (퇴) 출		13( 13.8)	32( 15.9)	45( 15.3)
	대 (퇴) 출		9( 9.6)	17( 8.5)	26( 8.8)
	계		94(100.0)	201(100.0)	295(100.0)
문 맹 률 (%)		19.1	11.4	13.9	
도시거주경험 률 (%)		23.7	28.4	26.9	
호당답경영면적 (평)		2,165	2,560	2,434	
호당전경영면적 (평)		954	1,054	1,022	
호당농업소득 (천원)		1,870	2,669	2,414	
호당농외소득 (천원)		248	686	546	

## 2. 調查部落의 一般的 特性

### 가. 全北 益山郡 三箕面 玄洞部落

2개의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안 이씨가 80% 이상인 同姓部落이다. 이 부락은 畓面積 중 耕地整理나 灌溉施設의 受惠를 받는 면적은 전혀 없었고 米穀과 땅콩, 고구마, 기타 잡곡이 主要作物이었다.

蓮洞部落은 2개의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었으며 張氏, 崔氏, 李氏 등 其他多數의 姓氏로 구성된 各姓部落으로 農業環境이나 作物은 玄洞部落과 비슷하였다.

### 나. 慶北 善山郡 高牙面

巴山洞은 金海許氏가 90% 이상인 동족부락으로서 耕地面積의 약 50%가 水利惠澤을 받고 있었으나 主要作物로는 米·麥이 주종을 이루었다. 한편 新村洞은 金氏, 李氏, 柳氏의 기타 다수의 성씨로 구성된 각성밭이 마을로 農業條件은 巴山洞과 비슷하다.

### 다. 慶北 漆谷郡 石積面

望亭2洞은 申응안씨가 90% 이상인 同姓部落으로 해발 350m에 위치한 마을로서 耕地整理畓과 水利安全畓이 全無한 地域으로 耕地는 계곡을 끼고 散在되어 있었다. 이 부락도 주요 작물은 米, 麥이었으나 유달리 참외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道開2洞은 金氏, 李氏, 張氏를 비롯한 기타 성씨로 구성된 各姓部落으로 主業은 米作과 麥作 그리고 蠶業이었다. 그외의 營農環境은 望亭2洞과 비슷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調查地域의 主要作物은 地域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米穀과 麥類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營農條件도 水利不安全畓 내지 天水畓이 대부분으로 극히 나쁜 편이다. 이들 조사지역

도 한국의 농촌이 그러하듯이 農家の 副業이라던가 特殊農業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靑壯年層의 勞動力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 라. 分析 方法

本研究에서는 同姓部落을 統制集團 ( control group )으로 各姓部落을 被統制集團 ( controlled group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간에 있어서 각각의 農政施策에 대한 呼應度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x^2$  검증법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百分率의 비교에 의해 두 집단간의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부락과 부락간을 직접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마. 몇 가지 操作的 概念

同姓部落과 各姓部落은 부락을 구성하고 있는 個別姓氏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 人文的 特性에 의한 구분형태이다. 따라서 同姓部落이란 같은 祖上의 血統을 가진 同一本貫의 姓氏로 구성된 마을을 칭한다.

이때 同一本貫의 상씨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研究者에 따라 약간 다르나 보통 1개의 同一本貫 姓氏가 지배적이던가 아니면 2~3개의 각기 다른 同一本貫 姓氏가 支配的일 때 同姓部落으로 본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3개의 부락이 공히 1개의 同一本貫의 姓氏로 구성된 同姓部落이었다.

한편 農政施策이란 農政目標를 具現하기 위해 수행되는 각종의 구체적 방안으로 그 내용도 다종 다양하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農政施策의 具體的인 內容을 家族計劃, 班常會, 논에 벗짚갈기, 畦畔에 콩심기, 複合營農, 土壤改良劑施用, 畦畔잡초태우기, 벼種子更新, 深耕, 客土, 冬季 營農教育, 벼종자 구입원과 農事技術指導를 위한 指導所의 이용 등으로 한정하였다.

### 3 分析結果

#### 1. 家族計劃

家族計劃에 관한 두集團간의 呼應度を 보면 同姓部落에서는 家族計劃 對象者 51명 중 34명(67%)이, 各姓部落에서는 對象者 129명 중 109명(85%)이 家族計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統計檢定에서도 0.01% 수준에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3 참조). 家族計劃에 대한 呼應度

表 3 家族計劃에 대한 實行狀態

부락별	내 용	한 다	안 한 다	계
동성부락계		34 (66.6)	17 (33.4)	51 (100.0)
현 동		12 (70.6)	5 (29.4)	17 (100.0)
파 산 동		11 (68.8)	5 (31.2)	16 (100.0)
망 정		11 (61.1)	7 (38.9)	18 (100.0)
각성부락계		109 (84.5)	20 (15.5)	129 (100.0)
연 동		46 (88.5)	6 (11.5)	52 (100.0)
신 촌 동		27 (71.1)	11 (28.9)	38 (100.0)
도 계		36 (92.3)	3 (7.7)	39 (100.0)
합 계		143 (79.4)	37 (20.6)	180 (100.0)

$$x^2 = 7.06$$

$$d. f = 1$$

$$p < 0.01$$

가 同姓部落이 各姓部落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그 理由는 동족부락이 동족의 기능에서 보았듯이 祭祀를 비롯한 崇祖의 思想이 강하고 또 祖上에 대한 祭祀儀式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價値觀이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時祭와 墓祭와 같은 祭式行爲를 통해 內面化된데서 나온 결과로 보아진다.

## 2. 班常會 參席

동성부락과 각성·부락민들간의 班常會 參與도를 보면 동성부락에 있어서는 주민의 88.3%가 거의 빠지지 않고 班常會에 참여하는 反面에 각성부락에서는 82.6%만이 참여함으로써 동성부락 주민들의 반상회 참여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간에 統計的인 有意性이 있을 정도로 參與도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참조>.

表 4 班常會 參與 實態

부락별	내 용	거의참석	거의불참	반반참석	계
동성부락계		83 (88.3)	4 (4.3)	7 (7.4)	94 (100.0)
현동		29 (87.9)	1 (3.0)	3 (9.1)	33 (100.0)
파산동		25 (86.2)	2 (6.9)	2 (6.9)	29 (100.0)
망정		29 (90.6)	1 (3.1)	2 (6.3)	32 (100.0)
각성부락계		166 (82.6)	8 (4.0)	27 (13.4)	201 (100.0)
연동		61 (91.0)	2 (3.0)	4 (6.0)	67 (100.0)
신촌동		45 (68.2)	3 (4.5)	18 (27.3)	66 (100.0)
도계		60 (88.2)	3 (4.4)	5 (7.4)	68 (100.0)
합계		249 (84.4)	12 (4.1)	34 (11.5)	295 (100.0)

$$x^2 = 2.25 \quad d.f = 2 \quad p > 0.05$$

이와 같은 사실은 班常會가 政府施策을 비롯한 農政施策의 傳達 窓口가 됨으로써 이에 不參하면 그만큼 정보에 어둡게 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이에 대한 參與意識이 동성·각성부락을 막론하고 높은데서 나온 결과로 보아진다.

### 3. 논에 벼짚갈기

논에 벼짚갈기는 有機質을 供給함으로써 土壤의 酸性化를 방지하고 땅심을 제고하기 위한 地力增進과 관련된 農政施策事業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農政施策에 대한 同姓部落과 各姓部落간의 施行事項을 보면 동성부락에서는 77.5%가, 각성부락에서는 83.6%가 논에 벼짚을 투입함으로써 각성부락에서 약간 더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統計的인 檢證結果는 有意性이 없게 즉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5 참조).

表 5 논에 벼짚갈기 實行狀態

부락별	내 용	한 다	안 한 다	계
동성부락	계	69 (77.5)	20 (22.5)	89 (100.0)
현 동	파 산 동	23 (74.2)	8 (25.8)	31 (100.0)
	망 정	21 (72.4)	8 (27.6)	29 (100.0)
각성부락	계	25 (86.2)	4 (13.8)	29 (100.0)
	연 동	163 (83.6)	32 (16.4)	195 (100.0)
신 촌	계	57 (85.1)	10 (14.9)	67 (100.0)
	도 계	52 (78.8)	14 (21.2)	66 (100.0)
합 계	계	54 (87.1)	8 (12.9)	62 (100.0)
	합 계	232 (81.7)	52 (18.3)	284 (100.0)

$\chi^2 = 1.55$   
 $d \cdot f = 2$   
 $p > 0.05$



이러한 農政施策에 두 집단간의 有意性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들간에 地力增進에 대한 필요성이 인지되어 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 4. 畦畔에 콩심기

규반에 콩심기를 農政施策의 일환으로 권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콩에 대한 自給度を 높이는 한편 遊休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同姓部落과 各姓部落民들의 시행사항을 보면 동성부락에서는 46.6%가, 각성부락에서는 53.3%가 이 施策에 따르고 있음으로써 각성부락에서 호응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성부락과 각성부락간에 유의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表 6 참조>.

表 6 畦畔에 콩심기 實態

부락별	내 용	한 다	안 한 다	계
동성부락	계	41 (46.6)	47 (53.4)	88 (100.0)
현 동	파 산 동	14 (46.7)	16 (53.3)	30 (100.0)
	망 정	3 (10.3)	26 (89.7)	29 (100.0)
각성부락	계	24 (82.8)	5 (17.2)	29 (100.0)
	연 동	104 (53.3)	91 (46.7)	195 (100.0)
신 촌 동	계	18 (26.9)	49 (73.1)	67 (100.0)
	도 계	34 (51.5)	32 (48.5)	66 (100.0)
합 계	계	52 (83.9)	10 (16.1)	62 (100.0)
	합 계	145 (51.2)	138 (48.8)	283 (100.0)

$$x^2 = 0.85$$

$$d.f = 1$$

$$p > 0.05$$

동성·각성부락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호응도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畦畔에 콩을 심음으로써 農作業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또 畦畔에는 雜草가 있어 콩을 심더라도 그 收穫量이 높지 않은데다가 播種과 收穫에 따른 人力이 크게 所要되고 있는데서 오는 현상으로 보아진다.

## 5. 複合營農에 대한 관심

複合營農은 農家所得源을 米麥 爲主로부터 多元化하여 農家所得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地域特性에 알맞는 作目을 米麥과 더불어 選擇적으로 도입육성하려는 주요한 農政施策이다.

이에 대한 두 집단 부락간의 關心度를 보면 동성부락에 있어서는 66.7%가, 각성부락에서는 72.1%가 적극적인 지지와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農民比率은 동성부락이 8.9%, 각성부락이 3.0%로 나타나 각성부락 주민이 동성부락 주민에 비해 複合營農에 대한 熱望度가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집단간에 차이는 統計的으로 有意性이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同姓部落중에서 巴山洞의 주민들이 複合營農에의 열망을 표시한 비율이 55.2%로 가장 낮는데 비하여 이 부락과 인접하고 있는 新村洞의 주민들은 74.2%가 열망을 보이고 있어 꺾이나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表7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부락간에는 複合營農에의 期待와 熱望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調查農民들의 70% 이상이 複合營農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農家所得源이 米麥 爲主였던 것에 대한 불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農村住民의 福祉向上을 기하고, 그들의 농업에 대한 열망도를 충

족하기 위한 첩경은 所得增大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농민들의 複合營農에 거는 기대를 저상시켜서는 절대로 안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生産에 따른 價格保障은 물론 販路對策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계속적으로 政策次元에서 해줘야 한다.

表 7 複合營農施策에 대한 熱望

부락별	내 용	매우희망적	보 통	회 의 적	계
동성부락계		60 (66.7)	22 (24.4)	8 ( 8.9)	90 (100.0)
현 동		23 (69.7)	7 (21.2)	3 ( 9.1)	33 (100.0)
파 산 동		16 (55.2)	10 (34.5)	3 (10.3)	29 (100.0)
망 정		21 (75.0)	5 (17.9)	2 ( 7.1)	28 (100.0)
각성부락계		145 (72.1)	50 (24.9)	6 ( 3.0)	201 (100.0)
연 동		39 (58.2)	24 (35.8)	4 ( 6.0)	67 (100.0)
신 촌 동		49 (74.2)	16 (24.2)	1 ( 1.5)	66 (100.0)
도 계		57 (83.8)	10 (14.7)	1 ( 1.5)	68 (100.0)
합 계		205 (70.4)	72 (24.7)	14 ( 4.8)	291 (100.0)

$$x^2 = 4.84$$

$$d.f = 2$$

$$p > 0.05$$

## 6. 土壤改良劑 施用

土壤改良劑로 공급되고 있는 소석회와 珪酸質肥料은 논에 벼질갈기와 더불어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면서 땅의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土壤改良劑에 대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민간의 施用狀

況을 보면, 동성부락은 80.2%가, 각성부락은 82.7%가 공급받는 量의 畝量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전혀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민 비율도 동성부락과 각성부락에서 각각 5.5%와 7.7%로, 두 집단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 이들 두 집단간의 土壤改良劑의 施用에 대한 有意性도 統計檢證結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8 참조>.

이와 같이 전체 농민의 80% 이상이 토양개량제로 공급되고 있는 소석회와 규산질비료를 畝量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이들 비료의 효과를 인지하고 그 시용의 필요성을 농촌지도소를 통한 기술지도 및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 절실히 알고 있는데서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8 土壤改良劑 施用實態

부락별 내용	전량시용	반절만시용	전혀시용않음	계
동성 부락계	73 (80.2)	13 (14.3)	5 ( 5.5)	91 (100.0)
현 동	22 (66.7)	7 (21.2)	4 (12.1)	33 (100.0)
파 산 동	25 (86.2)	4 (13.8)	-	29 (100.0)
망 정	26 (89.7)	2 ( 6.9)	1 ( 3.4)	29 (100.0)
각성 부락계	162 (82.7)	19 ( 9.7)	15 ( 7.7)	196 (100.0)
연 동	56 (84.8)	7 (10.6)	3 ( 4.6)	66 (100.0)
신 촌 동	59 (89.4)	7 (10.6)	-	66 (100.0)
도 계	47 (73.4)	5 ( 7.8)	12 (18.8)	64 (100.0)
합 계	235 (81.9)	32 (11.1)	20 ( 7.0)	287 (100.0)

$$x^2 = 1.64$$

$$d. f = 2$$

$$p > 0.05$$

## 7. 규격못줄 사용

규격못줄 사용은 한평에 한포기 더 심기와 같은 슬로건과 함께 小株密植으로 식량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권장되고 있는 농정시책의 하나이다.

규격못줄에 대한 동성집단과 각성집단간의 使用實態를 보면 동성부락에서는 63.7%의 주민이 규격못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각성부락에서는 78.3%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규격못줄을 사용안하는 비율을 보면 同姓部落이 33.3%인데 비하여 各姓部落은 2.5%에 지나지 않아 동성부락에서 사용치 않고 있는 농민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統計檢證에서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동성부락보다는 각성부락에서 규격못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9 참조).

表 9 규격못줄 使用實態

부락별	내 용	한 다	재래식사용	사용안한다	계
동성부락계		58 (63.7)	3 (3.3)	30 (33.3)	91 (100.0)
현 동		29 (93.5)	2 (6.5)	-	31 (100.0)
파 산 동		29 (100.0)	-	-	29 (100.0)
망 정		-	1 (3.2)	30 (96.8)	31 (100.0)
각성부락계		155 (78.3)	38 (19.2)	5 (2.5)	198 (100.0)
연 동		65 (97.0)	2 (3.0)	-	67 (100.0)
신 촌 동		59 (89.4)	7 (10.6)	-	66 (100.0)
도 계		31 (47.7)	29 (44.6)	5 (7.7)	65 (100.0)
합 계		213 (73.7)	41 (14.2)	35 (12.1)	289 (100.0)

$$x^2 = 60.60$$

$$d.f = 2$$

$$p < 0.01$$

그러나 이러한 統計的인 有意性은 望亭 2 洞에 있어서의 規格못줄을 使用안하는 비율이 96.8%로 使用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標本誤差에서 기인된 결과이다. 望亭 2 洞에서 이와같이 規格못줄을 使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 부락이 海拔 350 m에 위치한 지역으로 논의 계곡을 중심으로 小規模로 階層을 이루면서 오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못줄없이 산모로 모를 심어야 하는 立地的 與件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統計的으로는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農政施策의 受容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간에 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 8. 畦畔잡초 불태우기

畦畔의 잡초를 소각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이유는 월동하는 病虫害를 없애므로써 병충해의 발생소지를 줄이자는데 있다.

이러한 農政施策에 대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간의 施行反應을 보면 동성부락 주민의 61.9%가 畦畔의 잡초를 전부 내지 반정도 소각하는데 비하여 각성부락에서는 70.8%가 이를 이행하고 있어 각성부락의 이행 실행도가 약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농정시책의 施行도 두 집단마을간에 統計的인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0 참조>.

특히 望亭 2 洞과 도계 2 洞에서 畦畔에 잡초 태우는 시책에 대한 호응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부락의 農耕地가 樹木이 울창한 산과 인접하고 있어 산불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 9. 벼種子 更新年數

同一品種을 계속하여 連作할 때 病虫害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表 10 睦畔잡초 태우기 實態

부락별 내용	전부태움	태우지 않음	반정도만태움	계
동성부락계	45 (48.9)	35 (39.0)	12 (13.0)	92 (100.0)
현 동	28 (84.8)	2 (6.1)	3 (9.1)	33 (100.0)
파 산 동	16 (55.2)	5 (17.2)	8 (27.6)	29 (100.0)
망 정	1 (3.3)	28 (93.4)	1 (3.3)	30 (100.0)
각성부락계	122 (61.3)	58 (29.1)	19 (9.5)	199 (100.0)
연 동	58 (86.6)	5 (7.4)	4 (6.0)	67 (100.0)
신 촌 동	52 (78.8)	4 (6.1)	10 (15.1)	66 (100.0)
도 으 계	12 (18.2)	49 (74.2)	5 (7.6)	66 (100.0)
합 계	167 (57.4)	93 (32.0)	31 (10.7)	291 (100.0)

$$x^2 = 3.96$$

$$d.f = 2$$

$$p > 0.05$$

일종의 풍토병과 유사한 병이 발생되고, 또 소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종을 적어도 2~3년마다 갱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農政施策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각성부락할 것없이 1년마다, 2년마다, 3년마다 品種을 更新한다는 비율이 각각 30% 안팎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부락간에 統計的인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주민들이 同一品種을 계속하여 連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經驗이나 農村指導所의 技術指導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11 벼種子 更新實態

부락별	내 용	1년마다	2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계
동성부락계		27 (30.3)	34 (38.2)	26 (29.2)	-	2 (2.2)	89 (100.0)
현 동		13 (41.9)	9 (29.0)	7 (22.6)	-	2 (6.5)	31 (100.0)
파 산 동		7 (24.1)	12 (41.4)	10 (34.5)	-	-	29 (100.0)
망 정		7 (24.1)	13 (44.8)	9 (31.0)	-	-	29 (100.0)
각성부락계		66 (34.6)	55 (28.8)	63 (33.0)	3 (1.6)	4 (2.1)	191 (100.0)
연 동		35 (54.7)	14 (21.9)	12 (18.8)	-	3 (4.7)	64 (100.0)
신 촌 동		25 (37.9)	25 (37.9)	15 (22.7)	1 (1.5)	-	66 (100.0)
도 계		6 (9.8)	16 (26.2)	36 (59.0)	2 (3.3)	1 (1.6)	61 (100.0)
합 계		93 (33.2)	89 (31.8)	89 (31.8)	3 (1.1)	6 (2.1)	280 (100.0)

$$x^2 = 3.69$$

$$d. f = 4$$

$$p > 0.05$$

## 10. 深耕 및 客土事業에 대한 호응

深耕이나 客土事業은 畚의 土壤 作土層을 두터웁게 하여 水稻의 生育에 필요한 각종의 營養素 및 鑛物質을 공급하기 위한 地力增進事業과 관련된 農政施策의 하나이다.

이들 農政施策에 대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간의 호응도를 보면 <表 12>와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2>에 의하면 지난 5년동안 동성부락주민과 각성부락민 가운데 각각 72.3%와 71.6%가 深耕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두 집단의



住民간에 별스런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統計檢證에서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에 深耕한 回數를 중심으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간의 차이를 보면 同姓部落群에서는 深耕한 경험이 있는 68명 가운데 1회밖에 하지 않은 농가비율이 5.9%인데 비하여 4회이상 심경을 한 비율이 51.5%나 되어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거의 매년 深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各姓部落群에 있어서는 지난 5년동안 深耕한 144명 가운데 심경을 1회밖에 하지 않은 농가비율은 18.1%인데 비하여 4회이상 심경을 한 비율은 41.7%로 나타났다.

深耕回數를 중심으로 볼 때 동성부락주민들이 각성부락주민들보다 심경에 대한 호응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統計的인 有意性이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지난 5년동안 客土事業에 대한 두 집단간의 호응도를 <表 13>에서 보면 동성부락과 각성부락에서 각각 48.9%와 46.3%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客土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때 客土事業에 대한 두 집단주민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아님이 統計檢證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5년동안의 客土回數를 중심으로 두 집단주민간의 호응도를 보면 동성부락에서는 대상농가 46호중 45.7%가 1회를, 54.3%가 2회 이상을 한데 비하여 각성부락에서는 대상농가의 약 70%가 1회밖에 客土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0.05% 수준에서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농민들 모두가 客土사업에 대한 호응도 보다는 심경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심경에 단순히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논갈이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客土사업은 야산의 흙을 운반하여 논에다 넣어야 하는 작업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력증진과 관련된 효과로 볼 때는 客土사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권장되어야

한다.

表 12 지난 5年間 深耕實態

부락별	내용	있 다	없 다	계	1 회	2 회	3 회	4 회이상	계
동성부락계		68 (72.3)	26 (27.7)	94 (100.0)	4 (5.9)	21 (30.9)	8 (11.8)	35 (51.5)	68 (100.0)
현 동		27 (81.8)	6 (18.2)	33 (100.0)	3 (11.1)	9 (33.3)	4 (14.8)	11 (40.8)	27 (100.0)
파 산 동		28 (96.6)	1 (3.4)	29 (100.0)	-	7 (25.0)	2 (7.1)	19 (64.3)	28 (100.0)
망 정		13 (40.6)	19 (59.4)	32 (100.0)	1 (7.7)	5 (38.5)	2 (15.4)	5 (38.5)	13 (100.0)
각성부락계		144 (71.6)	57 (28.4)	201 (100.0)	26 (18.1)	41 (28.5)	17 (11.8)	60 (41.7)	144 (100.0)
연 동		51 (76.1)	16 (23.9)	67 (100.0)	5 (9.8)	10 (19.6)	10 (19.6)	26 (51.0)	51 (100.0)
신 촌 동		64 (97.0)	2 (3.0)	66 (100.0)	8 (12.5)	21 (32.8)	5 (7.8)	30 (46.9)	64 (100.0)
도 계		29 (42.6)	39 (57.4)	68 (100.0)	13 (44.8)	10 (34.5)	2 (6.9)	4 (6.9)	29 (100.0)
합 계		212 (71.9)	83 (28.1)	295 (100.0)	30 (14.2)	62 (29.2)	25 (11.8)	95 (44.7)	212 (100.0)

$x^2 = 0.0012$   
d. f = 1  
 $p > 0.05$

$x^2 = 6.08$   
d. f = 3  
 $p > 0.05$

表 13 지난 5년동안 客土實態

부락별	내용	있 다	없 다	계	1 회	2 회	3 회이상	계
동성부락계		46 (48.9)	48 (51.1)	94 (100.0)	21 (45.7)	18 (39.1)	7 (15.2)	46 (100.0)
현 동		8 (24.2)	25 (75.8)	33 (100.0)	6 (75.0)	1 (12.5)	1 (12.5)	8 (100.0)
파 산 동		28 (96.6)	1 (3.4)	29 (100.0)	13 (46.4)	13 (46.4)	2 (7.2)	28 (100.0)
망 정		10 (31.3)	22 (68.7)	32 (100.0)	2 (20.0)	4 (40.0)	4 (40.0)	10 (100.0)
각성부락계		93 (46.3)	108 (53.7)	201 (100.0)	65 (69.9)	22 (23.7)	6 (6.4)	93 (100.0)
연 동		25 (37.3)	42 (62.7)	67 (100.0)	19 (76.0)	3 (12.0)	3 (12.0)	25 (100.0)
신 촌 동		50 (75.8)	16 (24.2)	66 (100.0)	32 (64.0)	16 (32.0)	2 (4.0)	50 (100.0)
도 계		18 (26.5)	50 (73.5)	68 (100.0)	14 (77.8)	3 (16.7)	1 (5.6)	18 (100.0)
합 계		139 (47.1)	156 (52.9)	295 (100.0)	86 (61.9)	40 (28.8)	13 (8.6)	139 (100.0)

$x^2 = 0.71$   
d. f = 1  
 $p > 0.05$

$x^2 = 7.04$   
d. f = 2  
 $p > 0.05$

## 11. 벼種子 求入處

品種選定이 반절농사라는 말이 있드시 특히 벼농사에 있어서는品種選擇이 중요하다. 농가에서 새로운品種을 求入하는 방법은 이웃 또는 篤農家를 통해서 求得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農村指導所나 農協系統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다. 특히 農村指導所나 農協系統에서 공급하고 있는 벼품종은 신품종으로 食糧增産과 관련하여 政府에서 권장하고 있는 품종들이 많다.

금년에 심을 벼종자의 구입처를 중심으로 동성부락과 각성부락민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본 것이 <表 14>이다. 이에 의하면 동성부락주민 가운데 52.8%가 이웃이나 親戚등의 농가에서 구입한데 비하여 農協이나 指導所에서 구입한 농가는 47.2%로, 농가수준에서 구입하고 있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반면에 각성부락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農家水準(49.5%)보다는 지도소나 농협을 통해서 구입한 농가비율이 50.6%로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統計檢證結果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동성부락, 각성부락 주민 모두가 지도소나 농협계통을 통해 신품종을 구입한 비율이 전체농가의 약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품종에 대한 不確實性和 그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기피코자 하는 小農心理가 두 집단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다시 말하여 不確實성을 內包하고 있는 新品種을 指導所나 農協系統을 통해 求入하였다가 혹시 農事를 망치는 것보다는 이웃농가나 篤農家の 圃場에서 그 우수성을 직접 목격한 種子를 안전하게 자기도 선택하려는 농민의 心理가 두 부락농민들에게 작용한 결과로 보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부락중에서도 望亭2洞이 농가를 통해 벼종자를 가장 많이 求入하였는데 이는 望亭2洞의 主要耕地가 海拔 350m에 산재되어 있는 自然立地條件 때문에 多收穫 系統의 統一系 벼를 많이 재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14 今年度 벼種子 求入處

부락별 내용	농가	지도소	농협	계
동성 부락계	47 (52.8)	30 (33.7)	12 (13.5)	89 (100.0)
현 동	10 (32.3)	13 (41.9)	8 (25.8)	31 (100.0)
파 산 동	13 (44.8)	12 (41.4)	4 (13.8)	29 (100.0)
망 정	24 (82.8)	5 (17.2)	-	29 (100.0)
각성 부락계	95 (49.5)	70 (36.5)	27 (14.1)	192 (100.0)
연 동	43 (65.2)	16 (24.2)	7 (10.6)	66 (100.0)
신 촌 동	21 (32.3)	25 (38.5)	19 (29.2)	65 (100.0)
도 계	31 (50.8)	29 (47.5)	1 (1.6)	61 (100.0)
합 계	142 (50.5)	100 (35.6)	39 (13.9)	281 (100.0)

$$x^2 = 0.28$$

$$d.f = 2$$

$$p > 0.05$$

## 12. 肥料의 種類와 使用量 基準

우리나라 농민들은 세계적으로도 化學肥料를 많이 사용하는 편에 속한다. 化學肥料의 과용은 토양의 산도를 높여 肥沃度を 떨어뜨리고 農業公害까지도 발생한다. 따라서 화학비료 대신 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더 많은 사용이 바람직하며 사용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와 사용량도 적절하게 조정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農村指導所나 農業關係機關의 기술지도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동성부락과 각성부락민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를 본 것이 <表 15>이다. 이에 의하면 동성부락민들 가운데 32.6%가 指導所 등의 農業關係機關을 통하여, 또 64.0%는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을 토대로 비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 각성부락에서는 주민의 36.3%가 지도소나 농업관계기관을 통해서, 또 61.1%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비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부락 주민보다는 각성부락 주민들이 다소 農村指導所나 農業關係機關의 지도에 따라 비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두개 집단간에 有意性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들 두개 부락 농민들의 60% 이상이 아직도 자신의 경험에 의한 慣行的인 방식에 입각하여 비료를 사용하고 또 비료의 使用量도 정밀한 토양검증에 의한 土壤成分이나 酸度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耕地面積을 基準으로 하기 때문이다.

表 15 使用하는 肥料의 種類와 使用量의 基準

부락 별	지도소 · 농협 지도	자신 경험	매스 콤	계
동성부락계	29 (32.6)	57 (64.0)	3 (3.4)	89 (100.0)
현 동	9 (29.0)	22 (71.0)	-	31 (100.0)
파산동	17 (58.6)	12 (41.4)	-	29 (100.0)
망정	3 (10.3)	23 (79.4)	3 (10.3)	29 (100.0)
각성부락계	70 (36.3)	118 (61.1)	5 (2.6)	193 (100.0)
연동	18 (27.3)	46 (69.7)	2 (3.0)	66 (100.0)
신촌동	38 (57.6)	26 (39.4)	2 (3.0)	66 (100.0)
도계	14 (23.0)	46 (75.4)	1 (1.6)	61 (100.0)
합계	99 (35.1)	175 (62.1)	8 (2.8)	282 (100.0)

$$x^2 = 0.45$$

$$d.f = 2$$

$$p > 0.05$$

### 13. 농사에 관한 문의처

동성부락과 각성부락 주민들의 영농에 대한 相談狀況을 보면 동성부락 주민들은 각성 주민들보다 이웃이나 친지와 상담하는 비율이 19.6% : 8.5%로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에 農村指導所 등 政府機關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비율은 67.4% : 76.6%로서, 다소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조차 유의적이지 아니었다 <表 16 참조>.

특히 동성부락인 望亭 2洞은 다른 5개 부락에 비하여 친지나 이웃과 상담하는 비율이 높은데 (40.0%) 비하여, 農村指導所 등 政府機關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게 (56.7%)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이 부락

이 幹線道路로부터 2 km 떨어진 海拔 350 m에 위치한 山村마을로 교통이 불편한데다 耕地面積도 협소하여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 栽培面積이 적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이 마을에 방문하는 기회도 적고 또 마을 주민들도 농촌지도소를 자주 방문하지 않는데서 오는 지도공무원과의 접촉부족 때문으로 보아진다.

表 16 농사에 관한 문의처

부락별	친지·이웃	정부기관	독농가	문중어른	계
동성부락계	18 (19.6)	62 (67.4)	10 (10.9)	2 (2.2)	92 (100.0)
현동	3 (9.1)	25 (75.8)	5 (15.2)	-	33 (100.0)
파산동	3 (10.3)	20 (69.0)	4 (13.8)	2 (6.9)	29 (100.0)
망정	12 (40.0)	17 (56.7)	1 (3.3)	-	30 (100.0)
각성부락계	17 (8.5)	154 (76.6)	24 (11.9)	6 (3.0)	201 (100.0)
연동	5 (7.5)	56 (83.6)	4 (6.0)	2 (3.0)	67 (100.0)
신촌동	6 (9.1)	50 (75.8)	9 (13.6)	1 (1.5)	66 (100.0)
도계	6 (8.8)	48 (70.6)	11 (16.2)	3 (4.4)	68 (100.0)
합계	35 (11.9)	216 (73.7)	34 (11.6)	8 (2.7)	293 (100.0)

$$x^2 = 7.46$$

$$d.f = 3$$

$$p > 0.05$$

#### 14. 冬季 營農教育參與

冬季營農教育是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 農閑期를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農事技術에 대한 知識과 其他 生活情報를 제공하여 주는 농민을 위한 社會教育의 하나이다.

금년도 冬季營農教育에의 동성부락과 각성부락 주민간에 參與狀況을 본 것이 <表 17>이다. 이에 의하면 각성부락 주민들의 참여도가 동성부락 주민보다 약 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두개 부락간에는 統計的인 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성부락 주민이나 각성부락 주민 모두가 冬季營農教育에 높은 參與率을 나타낸 것은 그 만큼 科學化 營農을 위한 技術과 情報에의 욕구가 높아진 결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한 邑·面 등의 行政機關에서 참여를 독려한 요인도 크다고 보아진다.

表 17 冬季 營農教育 參與

부락별	했 다	안 했 다	계
동성부락계	73 (77.7)	21 (22.3)	94 (100.0)
현 동	27 (81.8)	6 (18.2)	33 (100.0)
파 산 동	23 (79.3)	6 (20.7)	29 (100.0)
망 정	23 (71.9)	9 (28.1)	32 (100.0)
각성부락계	161 (80.5)	39 (19.5)	200 (100.0)
연 동	48 (71.6)	19 (28.4)	67 (100.0)
신 촌 동	56 (84.8)	10 (15.2)	66 (100.0)
도 계	57 (85.1)	10 (14.9)	67 (100.0)
합 계	234 (79.6)	60 (20.4)	294 (100.0)

$$x^2 = 0.17$$

$$d. f = 1$$

$$p > 0.05$$



## 15. 農政施策의 傳播經路와 농민들의 受容經路

지금까지 15 개 항목의 農政施策을 중심으로 同姓部落과 各姓部落간에 이의 이행에 있어 어떠한 특징적인 差異가 있는가를 규명코자 하였다.

이때 基本的 前提는 다음과 같다.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성부락은 門中어른을 중심으로 門中일이 운영되면서 동족원간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동족집단은 동족원에 대해 政治的, 社會·經濟的, 教育的 및 祭祀를 거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동족원간에 강한 結合意識이 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동성부락에는 독특한 社會的 行爲樣式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동성부락의 특징적 요소들이 同族員의 農政施策을 受容하고 또 施行하는데 하나의 要因( factor )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假說的 前提에서 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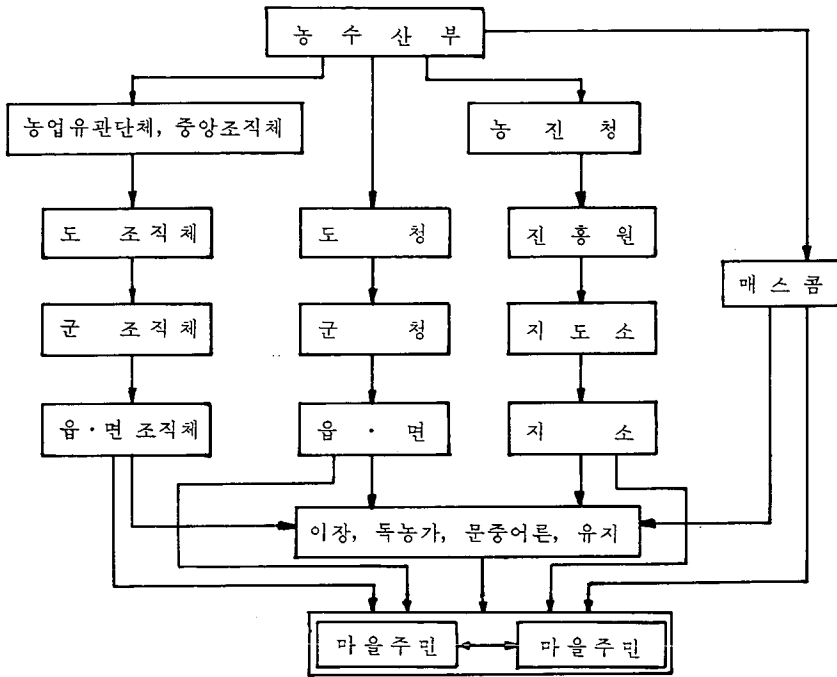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假說的 前提에 의하면 특히 동성부락에 있어서의 동성원의 農政施策에 대한 傳播經路로서는 문중어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農政施策이 農村住民에게 傳播되는 經路로는 農水産部가 主體가 되어 1) 道·郡·邑·面 등의 行政系統을 통하는 길과 2) 農村振興廳을 중심으로 하여 그 下部組織을 통하는 길과 3) 農業有關機關 및 團體를 중심으로 한 그 下部組織을 통하는 길과 4) 마지막으로는 매스콤을 통하는 길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 傳播經路가 농민들에게 연결되는 경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農政施策의 傳播經路和 또 앞에서의 假說的인 前提에 의하면 同姓部落에서는 문중어른이 同族員의 農政施策의 전파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문중어른이 農政施策의 傳播經路로서 하등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表 18>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表 18>에 의하면 동성부락주민의 52.7%가 里長 등 政府機關을 통해, 24.7%가 매스콤을 통해, 14.0%가 이웃이나 친지를 통해, 8.6%

圖 1 農政施策의 傳播經路圖



가 篤農家를 통해 農政施策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문중어른을 통해 農政施策을 알았던 주민은 단 1명도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각성부락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각성부락 주민은 里長 등 政府機關을 통해 農政施策을 안다고 하는 비율이 66.2%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이웃, 친지(16.4%), 매스콤(12.9%), 篤農家(4.5%)를 통해 農政施策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8 農民들의 農政施策 受容經路

부락별	이웃· 친지	이장 등	독농가	문중어른	매스콤	계
동성부락계	13 (14.0)	49 (52.7)	8 ( 8.6)	-	23 (24.7)	93 (100.0)
현 동	7 (21.2)	16 (48.5)	1 ( 3.0)	-	9 (27.3)	33 (100.0)
파 산	1 ( 3.4)	15 (51.7)	7 (24.1)	-	6 (20.7)	29 (100.0)
망정 2 동	5 (16.1)	18 (58.1)	-	-	8 (25.8)	31 (100.0)
비동족부락계	33 (16.4)	133 (66.2)	9 ( 4.5)	-	26 (12.9)	201 (100.0)
연 동	14 (20.9)	40 (59.7)	-	-	13 (19.4)	67 (100.0)
신촌 동	5 ( 7.6)	46 (69.7)	7 (10.6)	-	8 (12.1)	66 (100.0)
도계 2 동	14 (20.6)	47 (69.1)	2 ( 2.9)	-	5 ( 7.4)	68 (100.0)
합 계	46 (15.6)	182 (61.9)	17 ( 5.8)	-	49 (16.7)	294 (100.0)

이와 같이 假說的으로 前提했던 바와는 달리 門中어른이 동족원의 農政 施策 受容에 있어 傳播媒體로서의 하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문중어른은 대개가 나이가 年老한 분들로서 개개인의 經濟的 利害關係와 직결되는 農政施策을 이해하고 또 동족원들에게 주지시키기에 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둘째 문중어른이 동족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活動分野가 마을 발전이나 동족원 의 福祉向上에 직결되는 일이 아닌 門中일에만 한정되고 있는데서 온 결과로 보아진다.

## 4 要約 및 結論

農政施策을 효율적으로 農家에 傳播受容토록 함에 있어서는 농민 개인의 必要欲求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農政施策을 펼쳐나가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이에 그 補完策의 하나로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향으로 農政施策을 펼쳐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을의 특성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마을의 특성을 同一本貫의 姓氏分布 狀態를 기준으로 하여 마을을 同姓部落과 各姓部落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락간에 農政施策에의 受容 및 呼應度에 차이가 있나를 규명하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마을의 특성에 맞춰 추진해야 할 農政施策의 展開方案을 모색코자 한 것이 本 研究의 주目的이다. 이 目的을 위하여 동성부락과 각성부락을 각각 3개씩 선정 한 후 총 295 명의 農家經營主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 방식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집단간의 자료검정 및 설명은  $\chi$  자승법과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家族計劃 實行에 대한 호응도는 각성부락이 동성부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統計的으로도 0.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2) 班常會 參席, 客土事業, 深耕, 벼種子 求入處에 있어서는 동성부락이 각성부락에 비해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3) 논에 벼질갈기, 畦畔에 콩심기, 複合營農에 대한 기대, 土壤改良劑

施用, 畦畔 잡초 불태우기, 벼종자 갱신, 비료의 종류와 使用量 基準, 농사에 관한 문의처, 冬季營農教育과 같은 農政施策에 대해서는 각성부락이 동족부락에 비해 호응도가 높았으나 두 집단간에 統計的인 有意性은 없었다.

4) 규격못줄의 사용에 대해서는 각성부락이 동성부락보다 호응도가 높았으며 統計的으로도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同姓部落인 望亭 2洞에 있어서의 標本誤差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同姓部落에 있어서는 문중 어른이 동족원들에 대한 農政施策의 傳播者로서 기능이 전무하였다. 이 두 부락에 있어서 主要 農政施策에 대한 전파소스는 里長을 비롯한 政府行政機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農政施策에의 呼應度에 있어 동성부락이라는 특성이 크게 작용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개별 농민들이 개개인의 利益追求와의 합치여하에 따라 農政施策을 受容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農政施策이 立地的 與件에 따라 달리 受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